

사설

'생활속 수행' 자리매김 기대

— 재가회의의 보시·지계운동

한국불교재가회의(이하 재가회의)가 그동안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축적된 내부 역량을 대사회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현대산업사회에 판매된 도덕적 위기의식과 인간성의 내지 자기상실은 주체적 자아의 망각과 가치관의 상실이라는 사회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가회의가 매일 1일을 보시와 지계의 날로 정하고 기본 5계는 물론 대중교통의 이용, 산업쓰레기 내지 생분해 쓰레기 절감, 교육, 평화 등을 행위로 옮기자고 선언한 것이다.

원래 보시와 지계는 대중불교의 사회적 실천 덕목인 6바라미의 일부다. 보시는 나눔의 덕목으로서 재화, 교육, 평화를 공유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이래 고대부터 행해오던 10월의 제천(祭天)행사가 불교와 융합되어 팔관회로 발전하였는데 팔관회란 축제기간 중에 6개월에 지키는 8계제를 지키는 것이었다.

키가 있었다. 축제와 청정한 생활이란 인듯 모순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로 융합했던 것이다.

재가불교회의가 매일 1일을 보시와 지계의 날로 선언한 것은 대중정신과 팔관회의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한국불교재가회의는 불교단체 중에서 210여명에 이르는 각계 각층의 지도적 인사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재가회의의 구성원이 전국적이고 전문적인 사계의 지도적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조직이란 비판이 있어 왔다.

우리는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 생활자체가 수행이라는 의식혁신을 통해 새로운 신행의 덕목과 방편을 개발·실현한다는 행동강령처럼 새바람을 일으키는 실천운동의 계기가 되길 당부한다.

열린 마당

북한 수재민 돕기

한반도가 엄청난 수재로 피해복구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북한지역은 전 국토의 75%가 수해를 입는 등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 수재민돕기운동 전개를 발표했고 정부도 지난 18일 북의 공식요청

이 없어도 동포애로써 2백만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며 신중론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 수해지원과 관련 종단의 지원 계획과 더불어 이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들어본다.

자비행·정치타산 대비는 '금물'

— 동진 (대구불교교육진흥)

조계종 총무원과 종단협이 남북수재민 돕기 성금모금 행사를 개설한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대북발전의 문제라든가 수해지원문제를 놓고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 관계를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

와 현실적인 국민정서의 문제에서 기인되고 있다. 승려로서 그러한 문제를 두고 의견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다만 종단과 불교계가 늦게나마 행위를 개설한 것은 종교인의 인도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자비행·중요시 하는 불자들이 대북 수해지원금을

내놓는 것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일이다. 신앙심의 발로에서 행해지는 자비행과 정치적인 타산의 문제를 대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운 때 돕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불자의 사명이라면 이번 창구개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으로 자비실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풍년 잃은 중부권 피해복구 우선

— 김종록 (소설가)

한반도 더 이상의 언급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나 불교계에서도 충청도 등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막상 농토를 잃은 우리 농민들의 시름에는 배상과는 별도로 대북지원이 자국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북의

일부도 풍년을 잃고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북문제를 '모양 갖추기'의 정치적 문제로 돌려서는 안되고 거기에서 종교적 '자비심'이 희석되는 것도 염려스러운 일임을 지적하고 싶다.

동족에 확인 시킬 순수행동 필요

— 정 의 흥 (대전대 교수)

한 일간지가 여론조사결과 대북수재민 돕기 운동을 보는 국민의 60%가 넘는 사람이 반대 의사를 갖고 있으며 그 이유의 가장 큰 요인이 충청지역 수해복구란 것이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대북수재민 돕기 운동이 동포애로써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족애로써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심을 보여야지 대북수재민에 대한 배려는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사실이 조사에서도 돕는다면 같은 동포란 점 때문에 가능한 것(71.8%)이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 판단은 극히 낮았다(10.2%) 것이다.

불교계의 대북수재민 창구 개설도 이런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무조건 동포애에 호소하거나 자비행에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종교는 종교인의 도리와 사명을 보여주는 순수행동이 필요하므로 불자들의 동참은 결과 보다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실천운동이 될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 모금본부 개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6일 총무원 청사 1층 회관에서 '남북 수재민 돕기 모금본부 개소식'을 가졌다.

월주스님은 개소와 관련해 "북한 수재민돕기운동은 고통을 같이하는 동족애의 발현이자 동체대비정신 실천이며 생명존중의 불교사상을 이 땅에 구현코자 하는 것"이라 말했다.

조계종은 또한 피해가 심한 충청북 지역의 수역사·마곡사 말사 피해 상황을 파악, 정부에 수해 복구지원을 촉구하며 피해사찰의 4/4분기 일반분담금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또한 본사와 수해입은 사찰을 자매결연시켜 복구비용을 지원토록 할 계획, 현재 수해사찰로 파악된 곳은 수역사·마곡사·육원암·정암사·용화암·백운사·도피안사·보살사 등.

또한 한국불교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도 지난 16~17일 양일간 대토론회를 갖고 남북 수재민돕기모금에 들어갔다. 불교계의 모금 목표액은 7천만원 이상이다.

조계종 문화사회부 (02) 753-5863 불교종단협 사무국 (02) 732-4885 한국불교재가회의 은행지로 5070187

시론

전문성왕을 닦으세요

최근 불교계를 비롯한 각종 언론기관의 보도에 따르면,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종교계를 향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먼저 지난 13일에는 민주당 김윤환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당 대표가 직접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4일에는 민주당의 공동대표인 박일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총무원을 찾아 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이와 같은 정치권의 행보는 비단 불교계를 향한 것만은 아니다. 천주교와의 관계개선은 물론이고 개신교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협상수단 아닌 종교 더욱이 최근 정치권의 불교계 방문은 그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점들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정치권의 움직임이 순수한 동기와 의도에서가 아니라 선거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순수한 방문이라면 나를 게 없겠지 만 승적권 의도와 목적이 있는 방문이라면 정치권이나 종교계 모두를 위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못된다.

을 앞에 둔 지금은 예방을 위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행여 국민들에게 '정치권과 종교계가 정치적 흥정이나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혼탁한 시대 청정한 성역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종교계가 그 특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와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가 나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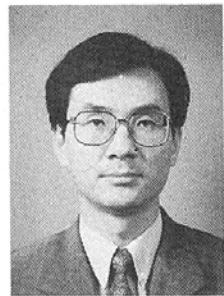
있더라도 그가 만약 욕망의 격정을 품지 않고, 성내는 마음과 사된 생각을 품지 않고, 방탕하지 않아, 깨달은 비가 있다면 그는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이며, 나는 그 비구 곁에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정법(正法)에 입각한 공평무사하고 자비로운 정치, 즉 법치(法治)를 행하는 전문성왕을 최고의 정치인상으로 삼는다.

정치는 권력을 쥔 자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은 법치의 이상을 품고 이룰 때 일수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고려 깊고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미 공과된 시험을 부활절이라는 이유로 변경하고, 그러면서도 부처님 오신날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도 없는 편파적인 정책, 문화유산의 가치를 아는 뜻있는 외국인들조차도 반대하는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계획을 강행하려는 고집,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성의 위화도 회교과 성공한 쿠데타를 운위하며 5·18관철자를 불기소처분하는 억지, 이러한 어리석음과 비법(非法)을 반성·청산하고 나서도 부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얼마든지 있음을 정치권은 알아야 할 것이요, 그에 앞서 정법(正法)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중한 불교계에 대한 예우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 경 준 (동국대 교수)

현대만평



한줌의 쌀이 모여...

Advertisement for Hwangaksan Jikjisasa 30th Anniversary. Includes text: '개침과 나눔을 함께 하는 열린 도량', '황악산 직지사 30년 중창 불사 회향', '중창불사 사진 전시회 9.25~10.19 만세루', '산사의 환경 음악회 10.15. 오후 3시, 직지사 잔디마당', '성보 박물관 개관 10.17. 오후 1시', '세미나 10.17 오후2시 천불암 신라불교의 재조명', '제1주제-신라불교 초전의 제문제', '제2주제-신라 고승들의 사상과 그 시대적 역할', '제3주제-신라삼국통일 및 오늘의 분단현실에 대한 불교의 역할과 사명', '만등불사에 참여하십시오', '활동사 9층탑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만등을 밝힙니다. 1인 1등으로 가정의 평화와 이웃과 나라의 발전을 다함께 발원 합시다.', '중참금: 일만원', '국민은행 605-01-0328-929 직지사', '문의: 직지사 총무소: 0547)436-6174, 재무실: 0547)436-6013', '주소: 741-810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협찬: SAMSUNG 삼성전자, 쌍용, 서광건설, 우방, 고령기원, 제일목재, 풍산동기악'.